



31일 광주극장서 특별상영 릭 베송 감독 58분 추가버전

눈이 시릴 정도로 푸르른 바다를 담은 포스터가 인상적인 '그랑블루'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남겼던 작품이다.

지난 1993년 국내 개봉된 '그랑블루'는 110분짜리 편집본이었다. 개봉 후 20년만에 감독의 의견이 반영된 리마스터링 감독판이 광주극장에서 오는 31일 오후 7시 특별상영된다. 58분이 더해진 버전이다.

릭 베송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레옹'의 장 르노가 주연을 맡은 '그랑블루'는 산소통 없이 자신의 숨만으로 깊은 수심까지 내려가는 프리다이빙인 두 남자의 뜨거운 경쟁과 우정, 그리고 사랑 이야기로 담담한 작품이다.

특히 시원한 푸른색 바다를 배경으로 한 아름다운 영상과 예리 세라가 작곡한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은 영화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

자크는 어린 시절 아버지를 잠수 사고로 잃고 바다와 돌고래를 가족으로 여기며 외롭게 성장한다. 그런 그에게 유일한 마을 친구인 엔조는 잠수 실력을 겨루는 경쟁대상이자 단 한 명의 친구다. 오랜 시간이 흘러 프리다이빙 챔피언인 엔조의 초대로 두 사람은 다시 만나고 자크는 보험사 조사원 조안나와 사랑에 빠진다. 문의 062-224-585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문예회관, 9월 말부터 선정 작업
11월엔 새 지휘자 체제로 공연
시립합창단도 1년 넘게 공식
지역문화계 “신뢰” 가장 우선돼야



장기 공식인 광주시립교향악단 지휘자 선임 절차가 9월 말부터 시작된다. 사진은 올 1월 광주시청 아외음악당에서 열린 광주시향 음악회. <광주일보 자료사진>

광주시향, 리더십 강한 실력있는 지휘자 뽑아야

장기 공식인 광주시립교향악단(광주시향)과 시립합창단 지휘자 선임 절차가 본격화 된다.

지역문화예술계에서는 호트러진 조직을 조기에 추스리고 시향과 합창단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강한 리더십을 가진 인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광주문예회관은 광주시향과 시립합창단 지휘자 위촉과 관련, 9월말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10월 중 후보군을 대상으로 자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공개모집 대신 특별전형으로 전문가 추천을 받아 위촉할 계획으로, 11월초에는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될 전망이다. 자문위원회는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전문가, 관련 공무원 등 5명 이내로 구성될 예정이다.

광주시향은 전임 지휘자 크리스티안 루트비히가 올 1월 단원들과의 불화로 자진사퇴하면서 그동안 부지휘자와 객원지휘자 체제로 사실상 파행 운영돼 왔다. 시립합창단도 2011년말 전임 지휘자 임기 종료

이후 후임자를 위한 공모를 진행했으나 적임자가 없어 1년이 넘도록 공식인 상태다.

광주문예회관 관계자는 “장기 공식인 양 시립예술단 지휘자 위촉을 위한 큰 틀의 윤곽이 나온 상태며, 11월에는 새로운 지휘자 체제가 시작될 것”이라며 “리더십 있는 지휘자를 위촉해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지휘자 선임 절차가 본격화 된 가운데 지역문화계에서는 수준 높은 시향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지휘자가 위촉되기를 바라는 분위기가 짙다. 전임 시향 지휘자 루트비히의 경우 단원들과 노조의 반대로 재계약을 포기하고 임기를 한 달 앞둔 채 자진 사퇴하는 선례를 남겨 향후 지휘자를 영입하는데 약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만큼 단원들의 화합도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이같은 지역문화계 호남재단 상임이사는 “능력과 자질이 가장 우선돼야겠지만 그동안 광주시향이

지휘자 문제로 매우 큰 갈등을 겪으면서 파행이 계속돼 왔다”며 “그 원인은 단원과 지휘자의 신뢰 문제가 원인이기 때문에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선정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에서 추천하는 인물도 자문위원회에 참여할 것인데 서로 간에 심사와 평가는 냉철하게 하되 합의된 결과는 존중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호트러진 조직을 정상화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등 리더십을 가진 지휘자가 필요하다는 주장에도 무게가 실린다.

김승일 조선대 음대 명예교수는 “자신의 구상과 의도대로만 악단을 끌고 가려는 지휘자가 있는가 하면, 단원과 악단의 수준을 빠르게 파악해서 그에 맞춰 이끌어가는 지휘자가 있다”며 “광주시향에는 후자에 맞는 지휘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기 욕심을 추구하지 않고, 단원들의 의욕을 북돋아주면서 더 높은 수준의 경지로 끌어올릴 수 있는

지휘자가 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윤만식 광주주민예총 회장은 “한 장르만을 공부하는 예술인들의 특성상 포용하는 민주적 능력이 부족한데 그동안 지역 예술단체 지휘자나 감독도 그런 부분에서 문제점을 드러냈다”며 “조직이나 단체를 맡길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을 선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찬경 광주음악회 대표는 “음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단원과 지휘자간 갈등이 없는 단체는 없을 것”이라며 “단원들을 압도할 실력을 갖춰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단원과 지휘자간 믿음과 우대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지혜로운 지휘자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광주지법은 최근 광주시향 단원 15명이 광주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광주시의 승소로 광주시향 단원들이 루트비히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명창 윤진철 그림전, 풍류 DNA 목포’ 8월1일부터 ‘목포 1935’서 전시

‘소리꾼이 화폭에 풀어낸 풍류.’

전주대사습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국악인 윤진철(49·광주시립국악단장)씨는 소리꾼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림쟁이기도 하다. 소리를 하다 흥이 나면 그림을 그리며 행복해하는 윤씨는 개인전과 초대전을 통해 그림 실력을 선보이기도 했다.

윤씨가 처음 소리를 배우고, 처음 그림을 그렸던 고향 목포에서 전시회를 갖는다. 8월1일부터 31일까지 ‘목포 1935’에서 열리는 전시 ‘명창 윤진철 그림전, 풍류 DNA 목포’는 최근 열린 목포세계마당페스티벌 부대행사로 열렸던 같은 전시의 양

코르 전이다. 윤씨는 이번 전시에서 정통 문인화부터 자신만의 시각으로 다양하게 풀어낸 작품을 선보인다.

전시가 열리는 ‘목포 1935’는 목포와 역사를 함께하는 유서 깊은 공간이다. 1929년 지어진 경기도식 한옥인 이곳은 초대 목포시장 최삼의 가옥으로, 조내과 의원 조두훈 원장의 가옥으로, 춘화당 한약방으로 역사를 이어온 곳이다. 한옥 게스트하우스인 ‘목포 1935’는 한옥체험시설과 각종 전시와 공연이 열리는 문화 공간 ‘봄’으로 구성돼 있다. 문의 061-243-1935. /김미은기자 mekim@



‘하조대 풍경’

“꿈의 무대에 도전하세요”

‘꿈의 오케스트라 광주’ 단원 모집

광주남구청소년수련관은 8월1일까지 ‘2013년 꿈의 오케스트라 광주’ 단원을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베이스, 트럼펫, 트럼본, 클라리넷, 플루트 등이다.

대상은 소외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남구 및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5학년 학생으로 매주 화·금요일(오후 6시30분~9시) 교육에 참석 가능해야 한다.

교육은 악기 파트별 교육, 전체 합주 교육, 캠프, 야외수업, 공연관람, 특별 프로그램 등으로 진행된다. 문의 062-670-5011.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www.kjhr.com

since 1982

창업 31주년 국제보청기

-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돌잔치,피로연, 칠수연, 세미나, 각종행사 (100석, 90석, 68석 40석28석, 16석 물안비)

YONAMJA 유스퀘어점

매콤한 오남자 필라프 YONAMJA Spicy sauce pilaf ₩7,900	봉골레 Yonggole ₩10,800	밀리노식 허브 크리스피 치킨 스테이크 Milano herb crispy chicken steak ₩10,800
핫 스파이스 오렌지 소스 포크 스테이크 Hot Spicy Orange Sauce pork steak ₩10,800	허니고곤졸라 피자 Honey gorgonzola pizza ₩12,900	

구분	영업시간	성인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초등학생)	미취학어린이(초~7세)
평일	11:30~22:00	25,000원	12,000원	8,000원
토·일·공휴일	11:30~22:00	29,000원	18,000원	12,000원

유스퀘어 2층 예약 및 문의 : 062)671-1199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 : 062)673-7979